

백원국 2차관, “하늘길 안전 확보에 빈틈 없어야” 강조

- 22일 항공교통본부 찾아 하늘길 안전관리... 효율적인 운영방안도 논의 -

-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월 22일(목) 오후 4시, 항공교통본부를 방문하여 공역 운영 및 하늘길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였다.
 - 이번 방문은 최근 항공교통량이 일 평균 2,400여대로 ‘19년 수준을 회복함에 따라 항공안전의 핵심인 관제업무를 총괄하는 항공교통본부를 찾아 하늘길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고, 안전하고 효율적인 하늘길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 - 항공교통본부는 우리나라 영토의 약 4배에 달하는 우리나라 비행정보 구역 내에서 항공기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항공기 관제, 항공교통흐름관리, 공역관리, 비행정보 및 항공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24시간 365일 무중단으로 제공하고 있다.
- 먼저, 항공교통본부를 찾은 백 차관은 ‘업무보고’를 받은 후, “항공안전은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항공교통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”면서, “공항에서 항공기가 이·착륙을 할 수 없는 상황 등 비정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대처로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국방부·기상청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줄 것”을 지시하였다.
- 또한, 최첨단 관제시설을 갖추고 24시간 우리나라 전체 항공기의 관제와 흐름조절 업무를 수행하는 관제소와 통제센터를 둘러보고 우리나라가 세계 8위 항공운송 강국으로 성장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한 관제사들을 격려하며,
 - “국민들이 안심하고 항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규정과 절차에 따라 관제업무를 제공해 줄 것”을 주문하였다.
- 아울러, “효율적인 공역운영을 통해 비행시간과 연료비를 줄이고,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해 달라”고 강조하였다.

- 마지막으로,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관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특성상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도 각별하게 신경써 줄 것”을 본부장과 간부들에게 당부하였다.

2024. 2. 22.

국토교통부 대변인